

##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예견된 출현에 대한 대응 방안은?

전가람(호서대 교수)

2015년 3월 23일

- AIIB는 중국 주도로 2014년 10월 24일 공식 출범한 국제금융기구
  - 2013년 10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아시아국가 순방 과정에서 공식 제안하고 2014년 10월 24일 500억USD 규모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공식 출범
  - 미국과 일본 주도의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에 대항하기 위해 설립된 은행
  - 공식출범 당시 참여 국가는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아세안(ASEAN) 10개국을 포함한 총 22개국, 최근(2015년 3월)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및 룩셈부르크와 스위스가 가입을 선언한 상태
  - 초기 자본금의 대부분을 중국이 출자(500억USD)하고 각국의 투자를 받아 1000억USD로 늘린다는 계획

### ■ 기존의 국제금융기구와 중국이 추진 중인 AIIB 비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아시아개발은행 (ADB)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
설립연도	2016년 설립 목표	1966년 8월	1945년 12월
설립주도국 (본부)	중국 (베이징)	미국, 일본 (필리핀 마닐라)	미국 (워싱턴DC)
역할	아·태지역 개도국 인프라 투자에 제한	아·태지역 개도국의 경제개발 지원	개도국 경제개발, 제도 개선 지원
회원국	33개국 가입 통보(2015년 3월 16일 현재)+α	67개국	188개국
자본금 규모	1000억USD 목표	1650억USD	2328억USD
주요국지분현황(%)	미정	미국(15.60), 일본(15.60), 중국(6.44), 인도네시아(5.44), 캐나다(5.23), 한국(5.06)	미국(16.95), 일본(8.45), 중국(5.44), 독일(4.72), 프랑스(4.20), 한국(1.58)
한국가입시기	미정	1966년(창립가맹국)	1955년

- AIIB에 대한 주요국 및 주요 국제기구의 입장
  - 미국과 일본은 세계 금융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며 우방국의 불참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 미국은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건전한 지배구조, 환경과 사회문제(노동

착취)에 대한 안전장치 구축을 명분으로 반대 입장 표명, 보다 근본적으로는 중국의 영향력 강화를 우려함

- 미국과 일본은 AIIB가 중국에 의해 주도되고 지분의 50%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어 회원국의 주도적 역할 발휘에 문제가 있으며, 지분을 증가를 위해 많은 자본의 투입이 우려되는 동시에 중국이 AIIB를 정치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아·태지역에서의 영향력 강화 등)이 있음을 경고
- 중국은 표면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참여를 환영한다는 입장이나 미국과 일본의 직접적인 참여보다는 기타국의 참여 유도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
- 영국과 독일, 프랑스 및 이탈리아 등 서방 선진국들은 경제적 실리를 위해 AIIB의 참여를 공식화한 상태
- 미국의 우방국(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AIIB의 참여를 통해 미국이 우려하고 있는 문제(운영방식과 투명성, 세이프가드 등)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
- 2014년 7월 세계은행 김용 총재도 AIIB의 필요성에 동의함

#### ■ 반세기만에 ADB의 대항마로 나타난 AIIB

- AIIB의 출현은 단순한 국제금융기구의 출범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 주도의 국제금융질서에 대한 일대 변곡점
- AIIB와 같은 국제금융기구(국제개발은행)가 설립되는 것은 소련 붕괴 이후, 1991년 동유럽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후 처음
- AIIB는 시진핑 정부의 ‘육·해상 실크로드(一帶一路: 중국 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통합 경제벨트 구상)’의 추진을 위한 자금원 역할(중국의 중서부와 인접 주변국을 묶는 시너지 효과 창출의 기회로 인식되고 있음)이란 것이 금융계의 대체적 시각이며, 중국 국내의 공급과잉 해소(통신, 고속철, 전력, 원자재 등 관련 중국 기업들의 수요 부진 심각)를 위한 방안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AIIB는 다수 출자국이 참여하는 만큼, 아·태지역의 인프라 건설(ADB는 2020년까지 아·태지역의 인프라 규모는 연간 8000억USD로 추정하고 있음)에 있어 참가국의 경제적 수혜가 기대됨

#### ■ AIIB의 출범은 미국 주도의 국제금융질서와 일본의 ADB 독식이 가져온 필연적 결과

- 1966년 출범한 ADB는 방대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9명의 총

재는 모두 일본인이었으며, 일본의 헤게모니가 가장 강력하게 투사되고 있는 국제금융기구

- ADB의 운영에 있어 아·태지역의 경제개발에 대한 대출 규모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연 150~200억USD 규모)이라 최근 대출 여력을 40% 증가한다고 밝힘
- 국제경제에서의 일본의 위상 축소와도 무관하지 않으며, 특히 실질적인 경제규모에서 중국이 일본 주도의 ADB에 불만을 갖는 이유로 작용(2010년 일본의 경제는 중국에 추월당했으나 지분율은 일본의 절반도 안 됨)
-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미국 중심의 금융체계(IMF와 세계은행 및 신흥국의 경제적 요구사항 등)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여론 증대
- 일각에서는 미국의 AIIB 가입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으나 분명한 점은 미국 주도의 국제금융질서가 상당한 저항에 직면해 있고 이를 극복하고 통제하기 위한 능력이 상당한 한계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

■ 한국의 입장과 전략적 대응 사항: 새롭게 디자인된 AIIB를 제안해야

- 아·태지역의 인프라 건설 규모가 엄청나다는 측면에서 국가 이익과 경제적 실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선택이 필요함
- AIIB가 아태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전제로 한 인프라 개발에 목적을 두고 있는바,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대북 인프라 건설을 통해 북한의 국제사회로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한국의 지분참여 과정에서 한국의 전략은 경제적 실리와 통일 문제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형태로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음
- 한국은 AIIB의 가입을 통해 기존의 ADB와의 차별성을 위해 AIIB가 단순히 아·태지역의 인프라 건설을 위한 투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해당지역의 평화와 발전이 세계 평화와 발전에도 상당한 인과성 및 유기적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AIIB의 설립 취지의 구성(design)에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할 필요성이 있음

※ 참고자료

신화망: 2015년 3월 21일

[http://news.xinhuanet.com/english/2015-03/21/c\\_134086378.htm](http://news.xinhuanet.com/english/2015-03/21/c_134086378.htm)

腾讯财经: 2015년 2월 14일

<http://finance.qq.com/a/20150214/020913.htm>

The Diplomat: 2015년 3월 21일

<http://thediplomat.com/2015/03/the-aiib-debacle-what-washington-should-do-now/>

The Economist. Retrieved 21 March 2015